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 6:7-8

농사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심고 수고했는가에 따라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으려는 마음보다는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의 일생은 농부와 같고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화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그림을 본 화랑 주인은 말했습니다. "글쎄 3년 안에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 옆에 당대 최고의 화가의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판매되었다는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그림들은 언제부터 전시되었습니까?" "이 화가의 그림은 전시된 지 사흘이면 모두 팔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화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린 그림이 3일이면 팔려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화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그림을 3일 만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3년 걸려 그림 하나 그릴 생각을 하거나"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찬송을 심으면 즐거움이 나오고 기도를 심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악을 심고 선을 기대해선 안 되고 미움을 심고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칭찬 받기를 기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일생을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심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뿌린 씨앗은 때가 되어야 거둡니다. 곡식을 심으면 한 철을 기다려야 하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 사람을 열매로 거두려면 최소한 2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 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큰 바위를 정으로 쪼았지만 아무리 하여도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용없다고 느낀 나머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도 이 바위는 전혀 깨지질 않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위가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바위를 정으로 두들기는 것이 네 임무니라"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마음을 비우고 계속 두들기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바위가 금방 산산조각이 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욕심이나 편견이나 고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내 욕심과 편견을 앞세우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옳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